



# 「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」 발표 1년 평가

김석영 연구위원, 이선주 연구원

- 작년 10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보험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강화하고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함.
  -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, 다양한 가격의 상품공급 확대, 자산운용규제 패러다임 전환, 판매채널 전면 혁신, 보험환경 변화에의 대응 방안이 제시되었고, 201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임.
- 금융개혁으로 보험상품 가격 상승, 신상품 개발, 표준약관 폐지, 신종자본증권 발행, 판매채널 개편,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, 판단요율 사용 등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.
  - 실손의료보험상품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있었으나 적정보험료 산출, 신상품 개발 활성화, 판매채널 관련 규정 확정, 보험다모아 오픈 등 긍정적 변화가 발생함.
  - 표준약관의 경우에도 실손의료보험 등 주요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협회 주도의 보험상품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등의 진전
- 보험산업이 금융개혁으로 인한 제도 변화를 따라가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, 보험산업이 연착륙되어 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.
  - 환경변화에 따른 합리적이고 유연한 규제, 시장경쟁이 활성화되는 환경 조성, 보험상품의 비교가능성 제고,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회사의 사후적 책임 강화 등도 요구됨.

## 1. 검토배경



- 작년 10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보험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강화하고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였음.
  -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적 규제 철폐를 통해 보험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고 새롭고 다양한 상품·가격 출현을 유도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하였음.
    - 보험회사들은 명시적·비명시적 가격규제가 사라짐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됨.
  - 표준약관 폐지, 가격자율화 등으로 부각된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해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을 활성화하고 상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음.
-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진행 현황을 평가해 보고 앞으로 개선할 점 등을 살펴보고자 함.

## 2.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<sup>1)</sup>



-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내용은 <그림 1>과 같으며 2017년 말까지 체계적·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임.

<그림 1>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전략 개요



1) 금융위원회 보도자료(2015. 10. 19), “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”, 별첨 자료 참조.

- 첫째,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신고제도, 표준약관제도, 상품설계기준, 부실상품에 대한 감독, 배타적 사용기간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소비자 수요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도록 유도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자 함.
  - 상품개발 자율성을 제한하던 금융감독원 제정 표준약관을 폐지하고, 배타적 사용권 기간을 확대하여 신상품 개발을 촉진
  
- 둘째, 다양한 가격의 상품 공급 확대 및 비교 공시 강화를 위해 위험요율 및 이자율에 대한 규제 재정비,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오픈 그리고 사후적 건전성 감독시스템을 강화함.
  -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위험률 조정한도 및 표준이율 산출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
    - 대다수 국민이 가입하여 파급효과가 큰 실손의료보험 등 일부 상품의 가격규제 완화는 2년 이상에 걸쳐 단계적·제한적으로 추진
  - 보험료 비교·공시 정보는 물론 보험상품 검색기능을 장착한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오픈
  
- 셋째,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 패러다임을 현행의 사전적·직접적 통제 방식에서 사후적·간접적 감독 방식으로 전환함.
  - 자산운용 한도 규제 폐지, 외국환 및 파생상품 관련 규제·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자회사 규제·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발행기준 완화
  
- 넷째, 과도한 판매채널 경쟁에 따른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공정한 시장규율을 확립할 수 있도록 판매에 대한 권한·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리·감독을 강화함.
  - 불완전판매 및 과다 수수료 요구 등 부당·불공정행위 억제, 모집인의 설명의무 미이행 또는 부당승환 시 과징금·과태료 등 금전제재 강화
  - 대형 법인보험대리점(GA)의 보험상품중개업자 전환 등을 통해 상품판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리·감독을 강화
  
- 다섯째, 기업성 보험 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보험회사의 종합적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함.
  - 기업성 보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체적 보험요율 산출을 허용하여, 재보험사 협의요율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요율을 산출하도록 유도

### 3. 현황 및 평가



#### 가.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

- 다양한 신상품이 개발되어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, 아직까지는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.
  - 주요 보장성 상품 대부분이 이미 보험시장에 소개되어 있어, 아직까지 다양한 새로운 종류의 보험 상품이 개발되지는 않고 있음.
    - 종신보험, CI보험, 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상품들이 대부분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개발·판매되었음.
    - 외국과는 달리 국내에서 아직 판매되지 않는 주요 상품으로 소득보상보험(Disability Income Product)이 있으나, 우리 사회환경에서는 위험이 너무 많아 보험회사들이 판매하지 않고 있음.
- 새로운 종류의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며 안전할증 규제도 2017년에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, 내년 이후에 새로운 상품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.
  -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은 길게는 몇 년간의 준비가 필요하므로, 금융개혁 이후 새로운 상품 출현 기대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임.
  - 안전할증은 2016년에 30%에서 50%로 상향조정된 이후 2017년에 완전 폐지되므로, 내년에 새로운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이 소개될 것으로 기대됨.
- 그러나 금융개혁 이후 새로운 상품구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한 상품이 증가하는 등 고객편의를 향상시키는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.
  - 배타적 사용권 취득이 2015년에는 생명보험 3건, 손해보험 5건이었으나, 2016년 10월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은 8건, 손해보험은 6건을 기록함.
    - 예를 들어, 헬스케어서비스를 보험상품에 연계시키는 상품이 개발되고 있음.

〈표 1〉 배타적 사용권 부여상품 추이

(단위: 건)

구분	2011	2012	2013	2014	2015	2016. 10
생명보험	3	4	6	5	3	8
손해보험	6	4	1	3	5	6

출처: 생명보험협회; 손해보험협회.

- 금융감독원이 작성하던 표준약관이 폐지되는 대신 보험협회에서 표준약관을 작성하고 상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약관에 대하여 자문하기로 함.
  - 보험협회에서 표준약관을 작성함으로써 공급자 중심의 불공정약관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소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함.
  - 상품심의위원회에 다양한 구성원을 참여시킴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함.
- 표준약관 관련 법규 개정 지연으로 금융감독원 제정 표준약관이 여전히 유효하나, 상품심의위원회는 활동을 이미 시작하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제정 표준약관 폐지는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.

#### 나. 다양한 가격의 상품공급 확대

- 금융개혁으로 직·간접적인 가격 규제가 사라짐에 따라 실손보험 등 일부 보장성 보험상품의 가격이 상승하였음.
  - 그간 누적된 인상요인을 반영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약 20% 가까이 인상되었음.
  -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는 사망률을 조정하여 보험료를 인하하기도 하였음.
    - 지금까지 보험회사는 타 상품의 손실상쇄를 위하여 사망보장상품의 보험료를 인하하지 않았음.
- 가격인상은 금리하락에 따른 예정이율 하락과 손해율을 반영한 적정한 보험료 산출에 기인한 것으로 가격자율화로 보험료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.
  - 보험료 산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었음.
  - 그 동안 가격 통제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다가 가격자율화에 따라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산출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함.

## 다. 자산운용규제 패러다임 전환

- 신종자본증권 상시발행이 허용되었음에도 보험회사는 아직 활발히 발행하지 않았으나, 향후 발행환경이 개선될 경우 부채시가평가제도에 대한 대응으로 발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.
  - 주식형 신종자본증권은 일부 국책은행을 제외하고는 수요 부족으로 국내 발행이 어려운 상황임.
    - 올해 기업은행만이 3,000억 원 규모의 주식형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성공하였으며, 신한은행 등 신용도가 높은 은행도 해외발행을 추진 중에 있음.

## 라. 판매채널 전면 혁신

- 판매채널 혁신 관련 로드맵 일정에 따라 최근 대형 법인대리점 영업행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「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」이 확정됨으로써, 상품비교가능성 제고 및 특정 회사상품 구매 강요 행위의 금지조치가 마련될 예정임.<sup>2)</sup>
  -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적용했던 상품비교설명제도를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(GA)에 확대 적용함(2017년 4월 1일 시행).
    - 상품비교설명제도란 대리 또는 중개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보험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·설명하고,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.
    - 또한 소속 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,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추가적인 업무기준을 마련함.<sup>3)</sup>
  - 보험상품중개업자 도입안은 실제 추진 검토 단계에서 보험상품중개업자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중장기 후속과제로 검토하기로 함.
-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활성화를 위해 개설된 보험다모아의 경우 도입 이후 약 11개월 만에 100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추가해 나가고 있음.
  - 인터넷 포털, 가격비교 사이트와 연계한 보험가격 비교 정보의 제공 등 앞으로 기능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확대

2)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보도자료(2016. 9. 27), “대형 법인보험대리점(GA)의 업무 공정성·투명성을 제고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”.

3) 이 밖에도 보험회사와 대형 법인대리점 간의 부당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함.

## 마. 보험환경 변화에 대응

- 로드맵 내용 중 가장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 일반손해보험 요율체계 변경은 일반손해보험회사들의 위험평가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판단요율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음.
  - 지난 수십년 동안 재보사 협의요율에 의존하던 일반손해보험 업계관행에 변화를 가져왔음.
  - 일반손해보험 대형사들은 관련 통계를 집적하고 위험을 평가하여 요율을 산출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음.
  - 판단요율 사용으로 인한 시장경쟁 심화 및 이로 인한 보험료 규모 축소로 업계는 판단요율 사용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
## 4. 개선방향



- 4차 산업혁명으로 사물인터넷(IOT)을 이용한 헬스케어서비스 연계 보험상품 등 기존 보험상품과 전혀 다른 형태의 보험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품신고 수리 시 유연한 자세가 필요함.
  - 사고 발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에서 사고 예방 측면이 부각되는 상품이 출시될 것임.
  - 따라서 사고 예방으로 보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보험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.
- 금융감독원이 작성하는 표준약관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, 약관작성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보험회사의 사후적 책임을 강화하여야 함.
  -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,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무의 범위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기재사항을 「보험업감독규정」의 보험약관 필수기재사항에 보다 구체화할 필요
  - 불평등 약관에 대해 사법적 규제를 강화하여 보험회사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약관 작성 시 주의하도록 유도
- 보험료 인상은 보험상품의 정상적인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해석되고 있으나, 시장 기제에 의한 가

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도록 시장경쟁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.

- 소비자가 보험가격 정보를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보험다모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활성화할 필요

■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자율적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더욱 보완할 필요가 있음.

- 「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」에서 완화를 검토하였으나 아직 시행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규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행 계획을 마련할 필요
  - 미해지된 외화자산의 잔존만기 인정 문제 등이 일례임.

■ 소비자가 자신의 필요에 부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의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함.

- 표준화된 상품 형태와 항목으로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
- 향후 소비자 민원과 분쟁에 대비하여 비교상품 중 특정 상품을 추천권유한 이유를 기록으로 남기고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방안 검토

■ 보험산업이 금융개혁으로 인한 제도 변화를 따라가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, 보험산업이 정착육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.

- 금융개혁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노력이 요구되므로 현재의 상황만을 바탕으로 한 로드맵 평가나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.
- 일반손해보험 판단요율처럼 준비기간과 활성화기간이 최소 몇 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므로, 시간을 가지고 시장의 변화를 관찰하여야 함. **kiri**